

역사의 물줄기 드러내는 '大河小說붐'

봉건시대의 민중사에서 현대사까지 잇달아 형상화

대하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책으로 묶여져 나오고 있다. 한국 소설문학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경리씨의 「土地」 제4부(3권, 지식산업사)와 趙廷來씨의 「太白山脈」 제3부(2권, 한길사)가 각각 출간되어 독자들을 긴장시킨데 이어, 최근엔 80년대 소설의 간판스타李文烈씨가 “내 문학의 한계를 걸겠노라”고 공언하고 써오고 있는 「변경」 제1부 「不妊의 세월」 3권(문학과지성사)이 출간되어 단번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뛰어오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본격문학’이라 하면 주로 단편소설을 가리키고 장편소설은 흥미본위의 신문연재물에 의해 명맥을 이어올 만큼 우리 소설문학은 외형상 왜소하고 취약한 모습을 노출시켜 왔다. 그러던 것이 70년대말부터 단편과 장편 사이의 디딤돌로 ‘연작소설’(윤홍길씨의 ‘아홉켠레 구두’, 이문규씨의 ‘우리 동네’, 조세희씨의 ‘난장이’ 등)이 유행되기 시작했고, 80년대는 장편소설의 개화기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리얼리즘 정신이 요구하는 현실의 총체성의 구현은 장편 이상의 크기를 요구하며, 재래의 단편 중심의 소설문학은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춰져온 민중사의 복원 · 재구성

물론 80년대 이전에도 우리 문단에서 大河小說(Roman fleuve)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한 작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완이긴 하지만 이미 30년대에 金南天은 「大河」라는 작품을 통해 그 싹을 드러내보였으며, 우리 문학시장과 출판계가 어느 정도 영세성을 면하기 시작한 70년대부터는 박鍾和의 「자고가는 저 구름아」, 柳周鉉의 「조선총독부」, 金聲翰의 「遼河」와 같은 방대한 분량의 작품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뒤편이더라도 우리 문단에서 대하소설 창작에 결정적 기폭제가 된 것은 박경리씨의 「토지」와 황석영씨의 「張吉山」(전10권, 현암사)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숨에 한국문학의 정상에 올라선 이들 두 작품의 출현 이후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총투입한 한판승부를 이쪽에서 찾기 시작했다.

이 분야의 소설은 대개 다음 두가지로 그 성격이 대별되는데, 그중 한가지는 그동안 지배층의 권력투쟁사 중심의 역사기술에 의해

감춰져왔던 봉건시대의 민중사를 복원 · 재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와 4.19로 이어지는 근 · 현대사를 다룬 것이다.

벽초의 「林巨正」을 전범으로 하는 전자의 계열에 포함될 수 있는 작품으로는 明宗 때 황해도 출신의 의적을 주인공으로 한 황석영

한국소설이 '대하소설'이란 새 영역을 탐색하고 있다. 연대기소설과 자전적 가족사 소설이 합류하고 있는 대하소설 붐은 독자들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야와 다양다기한 삶의 양태를 제시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씨의 「장길산」을 비롯, 劉賢鍾씨의 「임격정」(전6권, 행림출판), 전남 나주의 官三面사건을 바탕으로 한 文淳太의 「타오르는 강」(전5권, 창작과비평사), 흥경태난을 소재로 한 崔南伯씨의 「홍총각」(전5권, 행림출판), 진주 민란을 다룬 朴淵禧씨의 「민란시대」(전5권, 문학사상사)가 있고 金周榮씨는 보부상집단의 생활사를 그린 「客主」(전9권, 창작과비평사)와 동학농민전쟁의 반외세 · 반봉건투쟁을 그린 「활빈도」(전3권, 중앙일보사)에 이어 최근엔 모일간지에 고려말 무신시대를 배경으로 한 「화적」을 연재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대개 위정자와 외세의 포악한 탄압에 맞서 싸우는 민중의 역동적인 힘과 의지를 웅대하게 펼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와는 약간 다른 성격으로 崔仁浩씨의 「잃어버린 王國」(전5권, 우석)은 한 · 일간의 고대사를 탐색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시대의 '거대한 벽화'

지금 이곳의 현실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진 근 · 현대사를 다룬 대하소설로는, 지금까지 나온 작품 가운데 6.25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洪盛原씨의 「南과 北」, 추리소설의 형식을 빌려 민족의 비극을 파헤친 金聖鍾씨의 「여명의 눈동자」(전10권, 南島), 북한강을 배경으로 한 3대의 가족사를 그린 韓水山씨의 「流民」, 최초로 빨치산을 전면에 부각시켜 유명해진 李炳注씨

의 「智異山」(전7권, 기린원)이 각각 완결되어 독자 손에 쥐어졌다.

그러나 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대하소설로 아직 연재중인 작품도 상당수 있다. 한말에서 일제 식민지기간까지의 우리 민족의 굴곡 많은 삶을 도도한 흐름에 담은 박경리씨의 「土地」는 제4부에서 1930~38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무대도 보다 광활해져서 식민지 조선, 일본, 만주, 소련 등지로 바쁘게 오가고 있다. 여기서 작가의 관심은 총체소설로서 손색이 없게 식민지 조선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여성 · 독립투쟁 등 국내문제와 동아시아의 정세변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제4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작가 특유의 한 · 일간의 문화비교론이다. 일본과 조선의 문화적 배경을 ‘빈곤’과 ‘잉여’의 대립으로 파악한 것은 史家들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매우 다른 독창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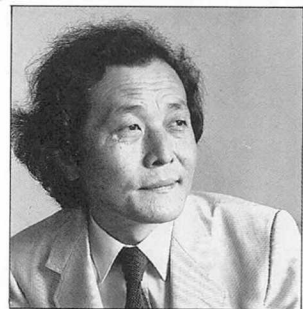
金源一씨의 「불의 제전」과 조정래씨의 「태백산맥」은 각각 경남과 전남지역을 무대로 6.25의 비극성을 도출해낸 문제작들. 1부 「인간의 마을」 2권(문학과지성사)을 펴내고 현재 2부가 연재중에 있는 「불의 제전」은 6.25가 일어나기 직전의 몇달 동안 작가의 고향 경남 진영읍을 무대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지식인의 이념적 방황과 농민들의 고통스러운 삶, 암암이 깃든 당대사회를 집중적으로 해부해서 보여주고 있다.

1부 「恨의 모닥불」(3권), 2부 「민중의 불꽃」(2권)에 이어 최근 3부 「분단과 전쟁」(2권)을 펴내고 4부 「전쟁과 분단」의 집필에 들어가 있는 조정래씨의 「태백산맥」의 경우, 좌우익에 대한 비교적 공평한 시각의 배분, 당시 농민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한 박진감 넘치는 묘사, 흥미있는 사건 전개로 80년대에 대단한 대중적 인기와 문단의 관심을 끌어모았다(1권이 현재까지 22판, 2·3권이 20판, 최근 나온 6·7권이 벌써 5판을 기록하고 있다). 49년 10월에서 50년 1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3부에 이어 4부에서도 6.25라는 전쟁의 전체상을 함축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작가는 밝히고 있다.

대하소설로서는 가장 최근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이문열씨의 「변경」은 제목 자체가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주변부 국가로서의 남한을 의미하고 있다. 작가의 부모이야기라 할 수 있는 「영웅시대」(민음사)의 속편



박경리씨



조정래씨



이문열씨

에 해당하는 이 작품은 이동영이 월북하며 남겨 놓은 젊은 아내와 두 아들, 두 딸들이 험난한 세파에 시달리며 살아내는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작가 자신이 6.25 직후부터 5.16군사쿠데타에 이르기까지의 잔혹한 세월에 대한 ‘거대한 벽화’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젊은 영혼들이 질곡의 시대의 역사와 맞부딪치고 마찰하는 가운데 본래 의도했던 삶으로부터 비껴나가는 양상을 특유의 흡인력 있는 이야기 속에 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듯이 우리 문학에서 대하소설은 본격적으로 착근단계에 있으며, 문학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 시대의 초상화를 그리고자 하는 작가의 야심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 대하소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스케일만을 의식한 결과 이야기가 엇가락처럼 늘어지고 앞뒤 연결에 틈이 생기기라도 하는 것은 지양할 점이라고 하겠으며, 대하소설에 대한 이론적 접근 또한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남진우 기자